

〈G20 뭉치?〉 시리즈 2탄

G20이 경제위기의 제시할 수 있을까?

G20(Group of 20)은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 직후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들의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로 시

작됐다. 주요 선진국들은 2008년 미국 발 세계경제위기가 터지자 G20을 정상회의로 격상했다. 경제위기의 손실 여러국가들과 골고루 나눠가지려 했다.

G20 정상회의가 제시한 경제 위기 해법은 무엇이었나?

G20 정상회의는 불안한 세계경제와 정신 나간 금융 체제를 개혁할 수 있을까?

말만 무성한 G20의 금융 규제

G20 정상회의가 회를 거듭하는 동안 금융 규제 방안들

은 말만 무성했지, 사실상 규제라고 할 수도 없는 조치로
후퇴하거나 심지어는 기존 규제조치 폐기됐다.

2008년 11월 15일 워싱턴 정상회의와 2009년 4월 런
던 정상회의는 금융기관의 위험자산 규모를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각종 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
했다. 하지만 이 규제안은 은행권의 압력으로 점차 후퇴
했다.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규제 수위를 낮추고 시행 시
점도 늦추자는 은행들의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또한 G20은 대표적인 금융 규제책으로 급부상했던 은행
세 도입을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G20이 말하는 금융 규제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G20을 빌미로 한 경호안전특별법 시행과
인권탄압. 너무한다고 생각한다면 함께해요 >_<

**G20을 빌미로 한
민주주의 · 인권탄압 규탄 국제공동행동의 날**

언제? 10월 1일 오후 4시 어디서? 종로 보신각

의 해결책을

G20 정부들의 경기부양책과 긴축정책

2008년 위기가 터지자 대다수 G20 정상들은 대기업들

의 도산과 급격한 수요 감소를 막으려고 경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 2009년 G20 런던 정상회의는 “사상 최대의 경기부양책”을 결정했다. 경기부양책은 세계경제의 추락을 어느 정도 완화하기는 했다. 하지만 이 경기부양책은 부자들을 위한 부양이었지 결코 노동자·민중을 부양하는 게 아니었다. 게다가 경제 전반이 부채에 더 많이 짓눌리게 했다.

각국 정부는 이렇게 ‘손실을 사회화’해 놓고 이제 와서는 이를 핑계로 긴축재정을 강조하고 있다. 캐나다 정상회의에서는 2013년까지 재정 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충격적일 정도의 긴축 규모를 보면 위기의 대가를 치를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해진다. 학생들은 수업료를 더 많이 내야 하고, 연금은 더욱 줄어들 것이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매우 삼엄한 경비 속에서도 G20 정상회의는 매번 격렬한 항의 시위에 부딪혔다. 런던, 캐나다에서 수만 명이 “우리는 저들의 위기에 대가를 치를 수 없다”며 거리로 나왔다. 프랑스에서는 노동자 6백만 명이 정부의 연금 삭감 계획에 항의하며 9월 7일과 23일에 총파업을 벌였

다. 우리도 오는 G20 서울 정상회의에 강력하게 항의 시위를 하자.

9월 27일 대학생다함께 stu.alltogether.or.kr

G20이 더 궁금하시다면, 함께 토론해요!

G20 서울 정상회의 -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연사: 김어진(사람이 우선이다! G20 대응 민중행동 공동 운영위원장)

언제? 9월 30일(목) 오후 7시 30분)

어디서? 대학로 한성대 에듀센터 807호 (혜화역 4번 출구 3분거리, CGV옆 건물)